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복지안전망 튼튼하게”

우범기 전주시장, 10월 확대간부회의서 복지 관련 사업 강화·가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 등 당부

우범기 전주시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칫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지나간 터널에서 빠져나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올해 말과 내년에는 힘든 시련은 더 험겨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의 기본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국가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 시장은 그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엔데믹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복지 관련 사업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이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한시적 지원 등이 끝나면 취약계층에게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국가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준비와 다가오는 하반기 인사에 대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가을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및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가장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현장 중심의 예방과 점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시장은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민선8기 첫 조직개편과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마음먹고 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떤 자리에서든 담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주인 의식 갖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수도계량기 시험소 서신통합센터로 이전·운영

전주시 수도계량기 시험소가 24년간의 풍서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동지인 서신통합센터로 이전된다.

시는 서신통합센터 이전과 맞맞춰 수도계량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병호 본부장)는 대형수도계량기 시험장비(80~200mm)를 교체하고 기존 소형수도계량기 시험장비(15~50mm)를 이전 설치해 서신동 수도계량기시험소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는 4일 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희수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보도제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협력 ‘의기투합’

시-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협약... 판로 확보·소비 확산 위한 적극 협조 등 협력키로

전주시와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4일 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희수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보도제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해 행정과 지역방송사가 의기투합

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전주시 소상공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산을 위한 적극 협조 △전주시 소상공인 판로 확보를 위한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공동홍보 추진 △추가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강건경제 전주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AI 활용 청년 취업지원 강화

전주시, 청년이음전주 내 AI 모의면접 시스템 운영

전주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들의 취업 면접을 돕는 등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모의 면접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 등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에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모의면접 시스템은 가상의 면접관이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던지고, 응답 내용과 표정, 목소리, 시선 처리, 움직임 등을 파악해 장단점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청년이음전주(063-288-8673~5)로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10월부터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청년꿈꿀옷장’ 사업도 재개한다. 이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5월 예산이 소진돼 조기 종료된 지역 5개월만에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구직자들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전 BESPOKE’와 ‘엔티도’ 등 2곳의 전문매장에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 입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youth.jon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되며, 이용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8-867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지역서점 살리는 ‘책쿵20’ 운영 재개

전주시민들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최대 20%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주시책사랑포인트 ‘책쿵20’이 재개된다.

전주시는 최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난 8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전주시책사랑포인트 ‘책쿵20’ 사업을 10월부터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책쿵20’ 제도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42개 참여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즉시 할인받고, 12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할 때마다 1권당 50포인트(원)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주시에 거주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립도서관 회원 및 ‘책쿵20’ 서비스에 가입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취락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책쿵20’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가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책쿵20’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서신동·중화산동 일대 맑은물공급사업 완료

전주시 서신동과 중화산동 일대의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교체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 정비용사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서신동수구역(서신동·중화산동) 5개 소분류 구간의 노후 상수관(56.2km) 교체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유수율이 기존 약 80%에서 85% 정도까지 향상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노후 상수도관의 잦은 누수 현상을 감소시켜 상수도 유지관리 및 유수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단 및 제6대 대표회원”

회장 윤방섭	국중훈	운영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윤일남
직무회장 정대영	김효성	김영량	이동규
부회장 양규환	김성민	김영욱	이용규
부회장 박종완	김양희	김용태	이재선
감사 이호철	나춘교	김재호	임재훈
원로회원 김성권	문길천	김종원	장기현
원로회원 김승희	박형식	박영자	정용준
원로회원 이정기	배문식	배진식	정준수
원로회원 이명도	이공희	송영식	조승석
원로회원 김승수	전영욱	안장환	최도성
원로회원 이동근	최산성	윤석	하태풍
원로회원 조병두	최현호	윤선화	한상우

대표회원 강지원	대표회원 남옥이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전주형
대표회원 강범준	대표회원 라형원	대표회원 유병수	대표회원 조영준
대표회원 고원석	대표회원 박성원	대표회원 유성희	대표회원 조희준
대표회원 권상민	대표회원 박정심	대표회원 윤기주	대표회원 조희철
대표회원 김광현	대표회원 박하명	대표회원 이기일	대표회원 최명선
대표회원 김문숙	대표회원 박혜경	대표회원 이다빈	대표회원 최광영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백현이	대표회원 이민규	대표회원 최용호
대표회원 김병학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상훈	대표회원 최종환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소만호	대표회원 이성모	대표회원 최태림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신재민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최태용
대표회원 김충우	대표회원 양민석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한경원
대표회원 김창수	대표회원 오대범	대표회원 이장규	대표회원 한용진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오은숙	대표회원 이재훈	대표회원 황재준
대표회원 김철모	대표회원 오영훈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황재영
대표회원 김형주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전양재	대표회원 황희정

(기초: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